제1회 동아시아사 교과서 연속기획 학술회의

「동아시아사」, 어떻게 집필할 것인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회의 개요 ——— 3 p

발 제 1

「동아시아사」 어떻게 집필할 것인가? ——— 4 p

김현구(고려대)

발 제 2

동아시아사 교과과정 개발의 과정과 논의점들 ——— 11 p

안병우(한신대)

발 제 3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상의 쟁점 ——— 15 p

김정인(춘천교대)

발 제 4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쟁점 ——— 24 p

김보한(단국대)

토 론

문영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길윤형(한겨레신문사)

정연(영락고)

‘동아시아사’ 교과서 학술회의 개요

□ 추진 배경

o 올바른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자, 교과서 집필자 및 관련전문가**들의 논의의 장 필요

※ ‘동아시아사’ : ’07.2. 교육과정 고시→’11. 교과서 검정·채택→’12. 현장 적용

□ 세부 내용

o 주제 : “「동아시아사」, 어떻게 집필할 것인가?”

o 일시 및 장소 : 2010. 5. 27(목) 14:00~18:00, 재단 중회의실

o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o 일정

사회 : 조철수(정책기획실 협력팀장)

시간	순서	담당
14:00~14:20	참가자 등록, 자료 배포, 개회사	
14:20~14:40	기조 발표	김현구(고려대)
14:40~15:00	발표1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안병우(한신대)
15:00~15:15	휴식	
15:15~16:00	발표2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쟁점	김정인(춘천교육대) 김보한(단국대)
16:00~16:20	지정 토론	문영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길윤형(한겨레), 정연(영락고)
16:20~18:0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동아시아사」 어떻게 집필할 것인가?

김현구(고려대)

1. 동아시아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역사교육은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근래 결성된 남미국가연합(UNASUL)을 비롯하여 EU나 NAFTA, ASEAN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적 협력과 통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EU는 지역, 인종, 종교, 이념의 장벽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시차는 있지만 동아시아도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중 일 3국간의 깊어가는 상호 무역의존도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한국의 경우 2009년 대외무역의존도가 중국이 1위로 20%, 일본이 2위로 10.7%로 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로 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중일 3국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말이 화두가 되어 있다. 동아시아사가 지향해야 할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동아시아사적 시각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640년대는 동아시아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64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다음 대외유화정책을 취하던 친일본파를 숙청한 다음 대야성 등 신라의 40여 성을 취한다. 642년 10월 고구려에서도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

악한 다음 대당유화정책을 취하던 보장왕을 제거하고 대당강경책을 취하기 시작한다. 고구려의 강경책으로 당의 고구려원정이 시작되고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일본에서는 대외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표면화되어 645년 당 신라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친백제정책을 주도하던 소가(蘇我)씨 정권을 타도하고 친신라정권을 수립한다. 신라에서는 647년 일본에서 귀국한 김춘추가 비담(毗曇)의 난을 제압한 다음 648년 당에 들어가 신라 일본 당 3국연합을 추진한다. 당시 동사시아 각국에서 일어난 정변들은 서로 맞물려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일국사 중심으로는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볼 때만 당시 동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중일이 뒤엉켜 싸운 663년의 백촌강싸움이나 1592년의 임진왜란, 1894년의 청일전쟁도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보편적인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사를 자국사 중심으로 볼 때 대립과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일본의 신자유주의 사관처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무시하고 자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만을 강조하여 임진왜란이나 2차세계대전을 국위를 선양한 전쟁으로 미화하려한다면 침략으로 고통을 당한 피침국들의 반발은 물론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지향해야할 가치관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경제발전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남부를 200여년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보다는 패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동아시아가 지향해야할 가치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각국간의 갈등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삼국의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공동으로 집필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4. 동아시아사를 논할 때 때 먼저 그 구조랄까 유기적인 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를 구조적이랄까 유기적으로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그 지향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동아시아의 구조랄까 유기적인 관계는 각국이 뒤엉킨 사건을 검토하여 공통점을 추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한중일이 뒤엉킨 전쟁이 3번 있었는데 663년 백촌강싸움은 당이 한반도를 점령하려하자 위협을 느낀 일본이 당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이고,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자 위협을 느낀 명이 한반도에서 일본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다.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은 한반도가 힘의 공백상태에 빠지자 청과 일본이 서로 한반도를 차지하려다가 부딪친 전쟁이다. 그리고 백촌강싸움 뒤 당이 한반도를 본격적으로 장악하려하자 이번에는 백촌강에서 싸웠던 신라와 일본이 손잡고 당에 대항한다. 동아사이 3국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신라 고구려 백제문화가 종합된 일본의 아스카(飛鳥)문화는 분열된 한반도 삼국이 통일전쟁과정에서 서로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진문물을 제공한 결과이다. 고대국가로 발전과정에서 대륙의 선진문물을 필요로 하고 있던 일본은 가장 선진적인 백제를 파트너로 선택하여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선진문물을 제공받지만 신라나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지원을 저지하기 위해서 선진문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립관계에 있던 삼국의 문화가 동시에 일본열도에 들어가서 아스카 문화를 성립시킨 요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가 분열되었을 때 일본과 한반도 각국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5. 동아시아사는 문화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문화의 독자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문화의 오해는 상호간에 장벽을 만든다. 예를 들면 일본은 열도주변에서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고 있으므로 날씨가 대단히 습하다. 따라서 일

찍부터 훈도시를 찬다든가 하는 노출문화가 생겨났고 목욕문화가 발달했다. 그 결과 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개방적인 문화가 생겨났다. 그러나 한반도는 대륙성기후라서 의관정제하는 유교문화가 일찍부터 정착했고 목욕문화도 발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자연환경에서 생겨난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기타나이죠센징'이라고 멸시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자연환경에서 생겨난 가치관을 가지고 일본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무시했다. 문화의 오해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자연환경에서 생겨난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은 다 같이 불교를 도입했다. 그 과정에서 사원의 중심인 탑은 한중일에서 각각 다른 형태를 띠고 발달한다. 중국은 좋은 벽돌이 있어 전탑이 발달했고, 한국은 좋은 화강암이 있어서 석탑이 발달했으며, 일본은 좋은 나무가 있어서 목탑이 발달했다. 같은 문화가 들어가도 그 나라의 자연환경에 따라서 각국 다른 형태로 발달한다. 문화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에서 다 같이 무가가 정권을 잡은 일은 있지만 일본에서만 무가사회가 출현했고,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무가사회가 출현하지는 않았다. 일본에서는 서구에 가까운 봉건제사회가 출현했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서구에 가까운 봉건제는 출현하지 않았다. 지역에 따라서 왜 각각 다른 문화가 발달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6. 공통의 의식이 형성되고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의 공유나 공통의 의식 없이 동아시아사나 동아시아 공동체는 성립될 수 없다. 한중일이 한자를 공유함으로서 각 지역간에 소통이 원활해지고 공통의 의식이 생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도 한자가 전파됨에 따라 소통이 원활해지고 학자나 유학생의 교류가 빈번해진다. 그 결과 율령제와 같은 공통의 제도가 출현한다.(일본의 율령은 당의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그리고 불교의 공유는 사상의 공유를 낳고 공동의 의식을 갖게 한다. 당에서 자장과 같이 공부한 것으로 생각되는 승민(旻)은 신라의 황룡사9층탑을 모방하여 백제대사에

9층탑을 짓는다. 그리고 신라 화엄종의 영향을 받은 일본 동대사는 신라 승려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까지도 불국사의 것을 참고로 했을 정도다. 동대사 서고에서 불국사의 설계도가 나오고 정창원 진보장에서 서원경의 장적이 나온 사실도 양 지역간에 사상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공통의 의식이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통의 문화나 의식이 형성되고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동아시아사가 지향해야 할 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 예를 들면 왜구, 1592년 임진왜란, 1910년 한일강제병합 등 침략전쟁은 이후 한국에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겼다. 침략전쟁은 피침국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부정적인 인식을 남긴다. 침략국에게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후 도요토미 정권이 몰락했으며, 한국을 강제 병합했던 군국주의 일본은 원자탄 피폭이라는 세계사상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배경과 극복과정의 이해는 동아시아 공동체형성에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왜구는 일본의 가경지 부족에서 오는 식량부족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무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태종, 세종이 적당히 길을 터줌으로서 왜구의 출현을 잠재울 수 있었던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된다.

8.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일본정치가들의 망언이나 역사교과서의 기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독일은 사과도 하고 역사교과서에도 기술을 하는데 일본은 반성도 안하고 역사교과서에 싣지도 않으므로 '독일은 좋은 나라, 일본은 나쁜 나라'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

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전후 2차대전을 주도한 나치를 비판하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주도세력이 되었으므로 자기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나치가 주변국을 침략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역사교과서에도 싣고 있다. 그러나 전후 동서냉전체제가 형성되자 미국이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설정하여 일본의 반공세력인 전범들을 석방함으로써 2차대전시 주변국을 침략했던 전범들이 다시 일본의 주도 세력이 되고 그들을 비판했던 세력이 오히려 야가 되었다. 따라서 현 일본의 주도 세력들이 2차대전시 주변국을 침략했던 사실을 사과하거나 교과서에 싣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입으로는 사과를 하지만 본심으로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독일은 사과를 하고 역사교과서에도 기술하는 '좋은 나라', 일본은 사과를 하지도 않고 역사교과서에도 실지 않는 '나쁜 나라'라는 식의 서술로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동서 대립속에서 1965년 한일수교로 한반도와 일본의 반공세력들이 결합함으로써 한반도의 반공세력은 일본에서 한반도를 침략한 세력과 손잡고 그들의 기술과 자본을 빌려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일본내에서 한국침략을 비판하던 세력은 적으로 돌리고 한국을 침략했던 세력들과 손을 잡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한일관계의 태생적인 문제점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념을 초월한 객관적인 서술이 이루어질 때 한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9. 역사의 오해를 피해가지 말고 객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대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200여년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은 1592년 임진왜란과 1910년 한일강제병합의 명분이 되었다. 한일양국의 교과서에서 적당히 호도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은 삼간 채 광개토왕릉비문의 고구려군이 '왜를 추적하여 임나가라에 이르렀다'는 부분을 소개하면서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진출하여 임나가라를 근거로 활약했다'고 서술함으로서 임나일본부설을 변형된 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반도 남부에

서 활약한 왜의 정확한 역할을 생략한 채 한반도 남부의 주체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열도의 고대 한반도 유물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져간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삼국이 은혜를 베풀어서 전해준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고대 한반도계 유물은 일본이 백제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서 백제가 일본에 제공한 것들이다.

백촌강싸움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당이라는 대제국과 한반도남부를 지배하던 소제국 일본이 부딪친 '고대 제국주의 전쟁설'이 통설로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당시 야마토 정권의 지배층이 백제인들이었으므로 멸망한 조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출병한 '조국부흥 전쟁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 하나의 진실을 정반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미래를 논하고 공동의 번영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사」 교과과정 개발의 과정과 논의점들

안병우(한신대)

1. 개발 과정

1) 교육과정 시안 개발

* 계기 : 교육인적자원부의 역사교육강화방안 발표(2006. 12)에서 동아시아사 개설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 필요.
* 과정 : 2006. 12. 21. 연구진 구성 및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의 연구진 회의와 한 차례의 토론회,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교사 32명이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현장적합성을 검토하여 보고서 제출. 2월에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 연구진 : 한국사 교수 2명, 중국사 교수 2명, 일본사 교수 2명, 독일의 역사대화 전공 교수 1명, 역사 교사 3명, 재단연구원 1명(한국사), 교육과정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고, 베트남 전공 교수가 부분적으로 참여.

2) 교육과정 고시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2월 고시(제7차 초·중등 교육과정 수시개정안).
* 교과부 고시 2009-41(2009. 12. 23)에도 그대로 고시

3) 교육과정해설서

*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내용요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
* 교육과정의 구체화이고 서술 내지 교육해야 할 내용의 제시
*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를 기초로 하여 3명이 작성.

4)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안내서(2009. 10)

전 26개 내용요소별로 성취기준, 서술상의 관점과 유의사항, 주요내용, 참고문헌의 순서로 교과서 집필자의 수준에 맞추어 서술. 외국 교과서의 내용을 서술한 경우도 있음. 국가사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의 통합 역사를 구성하려는 방향에서 서술. 내용요소별로 1-2명이 집필. 서술의 편차가 있고, 교육과정해설서와 일치하지 않는 서술도 간혹 있음.

5) 참고 사료

* 교과서 집필과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용요소별로 기본이 되는 사료 취합
* 발간하지 못함.

6) 교원 연수와 그 교재

* 방학을 이용한 교원 연수를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
* 교재는 대개 집필 안내서를 바탕으로 했으나 강의자가 별도로 작성하기도 함.

2. 개발 과정에서의 논의점들

1) 시안 작성 과정

* 체제 논의 : 통사형과 주제형에 대한 검토.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한국사를 배우고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운 점, 통사형으로 할 때 서술과 교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제형으로 결정.
* 시기구분 : 주제형으로 서술하고 교육하더라도 큰 시기구분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각국 역사의 발전 과정과 시대구분이 다르므로, 하나의 지표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가능하면 동아시아 전체의 커다란 사회변화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한다는 원칙.

두 시기 이상에 걸쳐 있는 주제(불교, 성리학)은 관련성이 큰 시기에서 다루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서술하도록.

* 내용 요소 선정 : 수업을 고려하여 25개 내외가 적합. 4단원까지는 4개, 5, 6단원은 5개씩 배정. 각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지역적 양상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주제 선정.
* 공간적 범위 : 오늘날의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하되, 공간을 명시하

지는 않음. 교과서 집필자들의 재량에 맡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베트남사.

2) 현장 적합성 검토
*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
* 지역범주가 불분명, 목차의 의미가 불분명.
* 주제사로 편제한 결과 단원구분의 일관성이 부족.
* 내용요소가 중국 중심, 심화학습에 필요한 내용요소로 미흡.

3) 토론회
* 범위 : 범위를 정할 필요성. 범위를 정하는 근거와 이유. 6단원에서 '느닷없이' 베트남전쟁이 언급되어, 공간적 범주가 어디인지 논란.
* 관점 :
a. '우리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지역사를 살펴본다'는 것과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는지? 이들 목표와 관점이 내용요소와 수미일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b. 갈등과 대립의 역사보다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더 강조해야 한다. 문명사적 비교사 또는 교류사의 관점에서 각국 문화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 보여줄 필요. '현재적 의미'가 있는 문화사의 맥락을 중심으로 주제 설정
c. 세계 속에서 동아시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열린 관점과 비전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아시아사의 독자적 역사상'을 중심으로 지역을 이해할 때 유럽 중심주의와 같은 배타적 지역주의적 성격을 가질 위험성 - 지역 외부와의 관계에 대한 시야 확보.
d. 한국의 정체성 문제 : 16세기 이후의 관계사나 교류사가 일본이나 중국측의 시각을 통해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그 속에서 조선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 내용 :
a. 특정한 시기의 두드러진 현상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나 있는 현상을 단원의 명칭으로 삼은 경우가 있다(인구의 이동과 문화의 교류,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 국제관계의 격변과 교역망의 발달 등)
b. 지역간 격차가 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예, 국가 성립)
c. '세계사의 이해'와의 차별성과 동질성

d. 용어의 문제 : 인구이동,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

4) 그래도 남는 점들

*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문제제기가 많다. 예 - 한국 학계의 동아시아사 연구 성과의 상대적 부족

* 교육과정이나 해설서에 담을 것과 교과서에 맡겨야 할 내용의 구분 : 교육과정은 대강만을 서술한다는 방침 유지.

* 교과서 집필의 문제 : 서술의 수준과 내용, 범위 등등

*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한 문제 발생:

a.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모두 선택과목이 되고, 선후 관계가 모호해져, 선수과목 이수로 인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

b. 집중적인 수업시간 편성의 장단점 - 한 주에 두 개 이상의 내용요소를 다루어야 할 가능성.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상의 쟁점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1. 집필 현황

천재교육과 함께 진행 중인 '동아시아사' 팀은 현재 초고를 집필 중에 있으며 26개의 성취 기준으로 중단원을 설정하여 내용 요소에 대한 의논은 마무리된 상태이다.

2. 구성의 원칙

○ 교육과정의 정신과 내용이 충실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 기본자료 : 교육과정, 교육과정 해설서
- 참고자료 : 교과서 집필 안내서, 모형단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관련 논문

○ 집필시 유의점
1) 가능한 한 동아시아 전체를 범주로 통합적 역사를 구현한다 : 동아시아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 유지, 국가별 서술 지양, 집필자의 전공국가 중심 지양, 베트남 영역 빠트리지 말 것.
2) 대단원 개관에 제시된 시대 범위를 따르되, 필요한 경우 시기를 넘나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리학'의 경우, 성리학을 주로 다루겠지만 선진 유학이나 한 대 유학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간략하게라도 다루어야 한다.

3) 지역 범위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한, 중, 일, 몽골, 베트남 영역으로 한다.
4) 국민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시대는 가급적 한, 중, 일 등과 같은 국민국가명 사용을 지양하고, 당시의 왕조명을 쓴다.
5) 내용 요소는 가급적 줄이되, 설명은 가급적 친절하게(문장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한다.
6) 독자 수준을 고려한 문장 : 어휘는 심하다싶을 정도로 쉽게, 복문 지양, 가급적 단문으로.

3. 쟁점 중단원의 소주제와 주요 학습 요소

1단원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중단원명	소단원명	소주제	주요 학습 요소
선사문화	황하와 장강 유역의 선사문화	황하 유역의 선사문화	황하 중유역의 선사문화 황하 하유역의 선사문화 황하 중유역의 선사문화
		장강 유역의 선사문화	장강 하유역의 선사문화 장강 중유역과 상유역의 선사문화
	내몽골과 요하,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선사문화	내몽골과 요하 유역의 선사문화	내몽골과 요서지역의 선사문화 요동지역의 선사문화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선사문화	연해주와 한반도의 선사문화 조몽 문화
	선사문화의 전래, 교류 그리고 전파	선사문화의 전파	선사문화의 서방 전래 선사문화의 교류와 전파
		다원적 기원론과 광역문화권의 형성	동아시아 선사문화의 다원성 대강 중심의 광역문화권 형성

2단원 인구이동과 문화교류

중단원명	소단원명	소주제	주요 학습 요소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	율령・유교의 성립과정	유가와 법가	戰國時代의 상황, 다양한 논의
		진의 법치주의	李斯, 엄격한 형벌
		한의 예치주의	황제권의 강화, 유교이념의 수용, 忠孝의 강조, 확대가족으로서의 국가
		율령과 유교의 특성	律의 발전, 신체형과 노역형, 농경사회의 법제, 중국적인 가족제도에 기초, 신분적인 차별
	율령・유교의 확산	삼국의 율령・유교 수용	왕권강화, 관인의 교육,
		수・당의 율령 정비	율령격식의 완성, 五刑

		통일신라와 일본	당율령의 수용, 국학의 설치, 교과내용, 법전의 편찬
	고대국가와 율령·유교	율령의 내용	군주권의 보호, 신분에 따른 차별, 존비장유의 차별
		관인제, 토지제, 조세제	관인의 등급과 복색, 연령에 따른 과역, 신라민정문서와 일본의 호적,
		선택적 수용	고유법, 상이한 가족제도

3단원 :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중단원명	소단원명	소주제	주요 학습 요소
문신과 무인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	이전의 지배층	왕족, 귀족, 장군
		새로운 지배층 등장 배경	송과 고려의 건국 과정, 절도사와 호족
		사대부의 형성과 변화	사대부, 官戶, 호족과 향리, 신사, 신진사대부, 사림
	과거제도와 문신 관료	과거제의 역할	당의 과거제, 송과 고려의 과거제(응시자격, 선발과정)
		과거제와 유학 교육	국자감, 성균관, 지방학교, 유학교육
		과거관료와 지배층	사대부와 양반, 음서와 세습직
	무사의 등장과 막부	무사의 등장	무사의 출신(농민, 귀족), 고케닌(御家人), 주종관계
		막부의 등장과 쇼군	가마쿠라막부, 公家와 武家, 쇼군, 구몬죠(公文所), 슈고(守護), 지토우(地頭)
		남북조시대와 전국시대	무로마치막부, 남북조, 슈고다이묘, 應仁의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4단원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중단원명	소단원명	소주제	주요 학습 요소
서민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서민문화의 발전	명청대의 서민문화	도시주민과 상업문화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과 서구문화의 전래, 기독교. 대중소설`예술의 등장과 발전
		조선의 서민문화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전(민요, 가면놀이, 민속놀이), 소설문화의 보급
		일본의 죠닌 문화	죠닌 문화의 발전(가부키, 우키요에),

			문자의 보급과 문학
	각국의 독자적인 전통 형성	청의 건국과 '성세'	명청시대의 연속성과 차별성 신사층과 과거 제도, 중화질서의 완성, 양명학`고증학 등 유학의 변천. 사상탄압과 대규모 출판사업
		조선의 양반사회	양반유교사회의 형성, 성리학의 지배 위치, 소중화의식, 후기 신분제의 동요
		에도막부의 성립	전국시대의 종결과 막번체제의 형성, 석고제. 쇄국정책, 무사지배와 신분체제

5단원 국민 국가의 모색

중단원명	소단원명	소주제	주요 학습 요소
5-4 평화를 향한 노력	반전운동의 흐름	반전운동의 출발	도쿄를 중심으로 한 지식 교류와 연대(동아동맹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일본과 중국의 반전운동	일본 반전활동가(가네코 후미코, 후세 다쓰지, 하세가와 데루) , 반전동맹 중국 폐지내전대동맹회
		아시아의 평화 사상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신채호와 바진
	반제· 항일을 위한 국제연대	한중연대	민족유일당운동, 동북항일연군, 조선족 자치주 성립, 김산의 활약
		한일연대	원산총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국제연대,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동 반제 투쟁, 수평사+형평사

6단원 오늘날의 동아시아

중단원명	소단원명	소주제	주요 학습 요소
6-4 오늘날 동아시아의 정치와 사회	민주주의 정치와 사회의 발전	일본의 정치와 사회	55년 체제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붕괴, 인구문제, 도시화, 환경오염, 노동, 여성, 교육
		한국의 정치와 사회	독재 정치와 민주화 운동 산업화, 도시화, 노동농민운동

			등 민중운동
		대만의 정치와 사회	대만의 민주화, 사회 변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중국의 정치와 사회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변화,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현대화와 개혁개방, 호구 제도,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계층구조, 가정생활의 변화
		북한의 정치와 사회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그에 따른 독특한 사회 문화
		베트남의 정치와 사회	베트남의 공산화와 도이 머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동아시아 국제 협력	동아시아의 부상, APEC 등 국제기구, 동아시아

4. 집필 샘플

동아시아의 불교

불교라는 종교

기원전 6세기 경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바라몬교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상공업이 발달하고 대도시가 성립되면서 새로운 종교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바라몬교와 신분에 따른 차별에 비판적인 사문을 지도자로 하고, 거리를 다니면서 걸식하는 승가라고 불리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불교와 자이나교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인과응보, 윤회전생, 수행을 통한 해탈 등을 교리로 하는 불교는 도시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기원전 1세기 경부터 전문화되고 폐쇄적인 종래의 불교에 대하여, 재가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이 나타났다. 이 운동의 모태가 된 것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안치한 불탑을 거점으로 한 신앙집단이었다. 석가모니를 초월자로 신격화하였으며, 나아가 부처의 자비에 의해 모든 중생이 구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노력하는 이상적인 존재인 보살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내었다. 남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행을 강조하는 새로운 신앙집단들은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하고, 자신의 구제를 위한 수행을 중시

하는 출가자 중심의 불교를 소승이라고 불렀다. 『반야경』, 『법화경』, 『무량수경』 등의 경전이 성립되면서, 새로운 민중불교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대승불교가 만들어낸 중요한 변화는 해탈을 통하지 않고도 부처의 자비에 의지하여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정토신앙이다.
한편 6세기 이후에는 대승불교의 마지막 단계인 밀교가 성립된다. 밀교는 힌두교의 주술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긍정하는 논리를 수용하였으며, 주술과 수행을 위한 다양한 의례와 도구, 도상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인도에서 성립된 대승불교는 한편으로는 간다라를 거쳐 비단길 상의 구자(龜玆), 고창(高昌), 돈황(敦煌)을 지나 북중국으로 유입되었고, 해로로는 북부베트남(자오 찌)을 거쳐 남중국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후 불교는 다시 한반도의 삼국과 일본열도의 왜로 전파되면서 기존의 토착문화를 크게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고대문화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밀교는 역시 동남아시아와 티벳·중국 등으로 전파되었으며, 티벳의 라마불교와 일본의 밀교화된 천태종과 진언종으로 융성하게 되었다.

불교의 유통

불교는 기원 전후한 시기에는 이미 서역으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후한 말부터 위·서진시대에 이르러, 인도 및 서역에서 건너온 승려들이 불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특히 후한이 멸망한 후에 오호십육국시대에 들면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다.
후조의 석호(재위 334-349)는 불도징의 감화를 받아 불교를 신봉하게 되었으며, 335년에는 한족의 출가를 용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비로소 한족에 의한 불교교단이 성립되었다. 지겸이나 축법호 등을 비롯하여 서역에서 온 구마라십 등이 많은 경전을 번역하여 중국불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중국 남조에서 융성하기 시작한 불교는 수·당시대를 거치면서 황금기를 맞았으나, 회창의 법난(842)을 계기로 점차 중국불교는 쇠퇴하게 된다.
6세기에는 달마가 선종을 전해, 후에는 임제종과 조동종의 양대 유파가 생기게 되었다. 9세기 초에는 통일신라에 선종이 전해지면서 지방 각지에 9산 선문이 개창되었으며, 이후 한반도의 불교는 선종의 영향력이 커졌다. 고려시대에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는 의천의 천태

종과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한 지눌의 조계종이 나타나 불교 교학의 정점에 도달하였다. 같은 9세기 중엽에 일본열도에는 밀교가 전파되어, 주술과 기도를 통한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특히 밀교적 주술, 계율, 참선, 정토신앙을 종합한 천태종의 연력사는 이후 중세 불교의 원류가 되었다.
3세기 경에는 북부 베트남에도 대승불교가 전해졌다. 인도와 중앙 아시아의 승려들이 무역선을 타고 해로로 베트남에 와서 불교를 전파하고 불경을 번역하였다. 소그디아나 출신의 강승회가 대표적인 인물이며, 그는 후에 오의 손권을 불교에 귀의시켰다고 한다. 이후 베트남 사회에는 불교가 확산되었으며, 10세기에 독립하고 나서도 통일신라나 고려에서와 마찬가지로 15세기 말까지 각 왕조의 적극적인 보호 하에 융성하였다. 승려는 왕의 국사로서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불교의 변용

한편 불교는 중국문화와 타협한 결과, 여러 가지로 원래의 인도불교와는 다른 특징을 갖게 되었다. 먼저 중국을 지배하게 된 북방민족들이 한족의 유교를 대신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한 것이 불교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구제보다는 국가의 진호를 목적으로 한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불교가 발생할 당시에는 인도의 민중 사이에서 먼저 퍼져나갔으며, 교리 자체도 민중의 구원을 우선하였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이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중국 사회의 지배자층이었다. 지배자들에게 불교의 교리보다도 주술력이 의미가 있었으며, 불교건축・불상 등은 신앙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거나 화려하게 장식하는 수단으로도 인식하였다. 따라서 승려와 불교 교단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으며, 출가도 국가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승려가 포교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배자를 부처와 동일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황제를 재림한 부처로 여기기도 하였고, 불상의 얼굴을 현실적인 지배자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황제・귀족・평민・노예 등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엄격한 현실적인 차별과 그에 따른 고통도, 불교 교리에 따라 자신의 공덕과 업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여, 차별받

고 있는 인간들이 그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참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즉 중국과 한국 일본에 처음 수용된 불교는 지배자를 위한 불교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를 흔히 호국불교라고 부른다.
또,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쓰인 경전들을 표의문자인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복잡한 개념어로 사용된 불교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이 적잖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불교 경전들이 인도에서 성립된 시기와 관련없이 모두 석가모니가 설법한 내용으로서 유입되어 번역된 결과, 이들 경전을 어떻게 하면 모순이 없도록 배열하여 그 내용들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커다란 문제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각 종(宗)이 성립되었다.
그 이외에도 중국적인 사회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원래 인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경전들을 만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원래 불교에서는 중시되지 않았던 효에 관해서 『부모은중경』을 만들어 불교에도 효라는 관념이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이미 중국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유교적인 장례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또 토착신앙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특히 산악신앙이나 용신신앙이 불교와 혼합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바다를 항해하는 승려를 도와준 용이나 비를 내리는 일을 도운 이무기 등의 전설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토착신이 불교를 수호하는 신으로 수용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일본에서는 토착신들이 원래는 부처나 보살이었던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불교 전래의 의미

동아시아 사회는 불교의 전래를 통하여, 동일한 종교・문자・문화・예술 등을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승려들이 불교를 배우거나 불경을 입수하기 위하여 빈번한 왕래를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사회 내부의 인적・지적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 시기에도 정치・경제・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사신의 왕래나 상인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불경이 함께 전해지면서 이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한문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커졌다. 불경을 통해서 익힌 한문을 바탕으로 승려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한자를 써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

다. 비로소 한자와 한문은 동아시아 사회의 공용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두와 같이 한문 해독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생겨나는가 하면, 한자를 변형하여 일본어의 음을 나타내는 가나라는 문자도 만들어졌다.

또한 불교가 사회의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지배자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믿게 되었고 이르는 곳마다 사찰이 건립되었다. 불타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빈민을 위한 구제시설을 세우거나 다리를 놓고 저수지를 축조하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북위의 승지호와 불도호, 양무제가 세운 무진장, 고려의 제위보·동서대비원·혜민국, 일본의 비전원과 시약원 등은 모두 빈민구제와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처럼 자비심을 가지고 빈민을 구제하는 것은 내세를 위하여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복전사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빈민구제활동은 지금 주어진 삶이 전생의 인과응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불교교리와 맞물려서 고대사회의 신분적인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불교의례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여 뼈단지에 넣어 묻는 화장문화가 보급되었다.

한편 불교예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상, 불화, 불교건축은 새로운 조형미와 기술의 결정체였으므로 각 사회에 강한 자극을 주었다. 붓·먹·안료의 제조법이나 새로운 회화기법, 불상주조법, 건축술 등이 승려들을 통해서 전래되었으며, 이국적인 풍모의 금박을 입힌 불상이나 화려한 색채의 불교미술, 기와와 주춧돌을 사용한 장대한 건축물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사찰건축에서 비롯된 새로운 건축술은 점차 궁궐건축에도 적용되었고, 후에는 기와집과 같은 일반적인 주거건축으로도 자리잡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사찰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소이자 지식을 전파하는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의 사찰은 국적을 초월한 공간이었으며, 승려는 신분을 따지지 않는 국제인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거칠부는 고구려의 승려 혜량에게서 배웠고, 일본의 쇼토쿠태자는 고구려의 혜자를 스승으로 모셨으며, 당의 감진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의 동대사를 낙성할 때는 당의 감진, 인도 승려 보제, 임읍(베트남 중부)의 승려 불철이 한 자리에 있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쟁점

김보한(단국대)

1. '동아시아사' 역사교과서 집필의 시작

교학사 출판예정으로 기획 중인 '동아시아사' 역사교과서는 강원대학교 손승철 교수외 7인의 집필자를 중심으로 집필 진행 중에 있다. 본 '동아시아사' 역사교과서 집필팀(이하 '본 팀')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2009년 7월 21일 제1차 모임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현재까지 본 팀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논의하였던 진행상의 어려움 및 문제점에 대해서 그 동안의 회의록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총 6차 집필회의 내용(일부)

『동아시아사』 교과서 2차 회의			
일 시	2009년 8월 22/23일 토요일	시 간	1박 2일
회 의 내 용			
회의 주제	• 집필 단원 배분 • 집필 방향 논의 • 얼개(키워드) 구성		
협 의 사 항	• 동아시아사 집필 단원 배분(6개 대단원-8인) • 집필 방향 논의 - 대단원(편)-중단원(장)-소단원(절) 중 '중단원(장)'까지는 교육과정 해설 준수 - 소단원은 집필자가 융통성 있게 재구성		

	- 한, 중, 일의 비율의 문제 • 본문 이외의 내용(지도, 인물, 사진, 칼럼, 사료 등) - 교사 연수 교재를 분석하여 제목 정도를 명시 - 각 집필자는 1개의 중단원을 작성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논의하자
차 기 회 의	• 일시 : 2009년 9월 26일(토) 16시 • 장소 : 교학사 • 내용 - 집필자 담당분야에 대한 얼개(key-word) 설명 - 본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내용작성 및 설명 - 위의 사항에 대해 A4 2매 정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동아시아사』 교과서 6차 회의

일 시	2010년 4월 24일 토요일	시 간	15:00 ~ 18:00
회 의 내 용			
회의 주제	• 담당 부분 본문 집필 내용 검토 • 손승철 교수 도일 후의 일정		
협 의 사 항	**1. 담당 집필 부분에 대한 논의** • 대단원 1 :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가. 선사 시대에서 베트남을 어느 정도 다루어야 할 것인가? 나. 한·중·일의 선사 시대와 국가 성립의 편년이 다른데 어떻게 할 것인가? • 대단원 2: 인구의 이동과 문화의 교류 가.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집필자간 조정 필요 나. 사료와 사진의 적절한 배치가 어렵다. • 대단원 3 :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가. 지리적 이해를 돕기 위한 지도를 활용하자. 나. 7세기 이후 일본의 율령국가와 토지 제도를 간단히 서술하자. • 대단원 4 :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가. 베트남에 관한 서술이 필요하다. 나. 동아시아의 유통 시스템을 큰 그림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 대단원 6 : 오늘날의 동아시아 가. 전후사는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나. 지역 패권의 장악 과정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2. 차기 회의 준비 사항** • 초고 마감: 5월 말까지 • 가제본 집필자에게 보내기: 6월 7일까지 • 가제본 검토 회의: 6월 13일(일) 오후 4시 • 원고 수정: 8월 말까지 • 조판: 9월까지 **3. 집필에 필요한 자료 수집하기**		
차 기 회 의	• 일시 : 2010년 6월 13일(일) 16시 • 장소 : 교학사 2층 연수실 • 내용 : 가제본 검토 회의		

3. 교과서 집필의 대단원별 쟁점

영역(대단원)	내용 요소(중단원)	집필 쟁점(문제점)
머리말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선사 문화 ◦농경과 목축 ◦국가의 성립과 발전	1. 도입부 내용을 어떤 식으로 시작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한일 관계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3. 수렵사회론 등의 수용 여부 및 용어의 통일 문제가 고민이다. 4. 홍산문화의 관점 문제, 중국 청동기의 전래에 대한 새로운 학설의 수용 문제, 일본의 역사 시기 문제, 수렵문화의 분리 가능성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5. 선사 시대에서 베트남을 어느 정도 다루어야 할 것인가? 6. 한・중・일의 선사 시대와 국가 성립의 편년이 다른데 어떻게 할 것인가? 7. 용어의 문제가 어렵다.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 ◦고대 불교, ◦ 율령과 유교에 기반을 둔 통치 체제 ◦동아시아 국제 관계	1. 교과서를 어떻게 학생 수준에 맞추어 풀어서 쓸 것인가 2.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집필자간 조정 필요 3. 각 대단원에서 앞 뒤의 시기를 어떻게 연결 정리할 것인가. 4. 여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고, 고선지 등 세계사적 시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5. 인구 이동은 어느 시대부터 서술해야 하는가 6. 사료와 사진의 적절한 배치가 어렵다.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북방 민족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 ◦문신과 무인	1. 유목민족, 북방민족, 유목기마민족, 기마민족 등의 다양한 용어통일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2. 송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다. 3. 주제별 서술인가 국가별 서술인가가 문제이다. 4. 베트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5. 7세기 이후 일본의 율령국가와 토지 제도를 어떻게 서술하는가. 6. 사회 변화의 모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나.

영역(대단원)	내용 요소(중단원)	집필 쟁점(문제점)
	◦성리학	1. 16세기 이후 성리학의 발달과정에 대한 내용의 포함문제. 2. 18·19세기 성리학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다.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은 유통과 교역망 ◦인구 증가와 사회, 경제 ◦ 서민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1. 통신사, 연행사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집필 안내서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서민문화 부분에서 각국의 독자적 전통의 중복과 추상성이 해결되어야 한다. 3. 전쟁, 은, 바다에 대한 주제를 조선을 중심으로 서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 조선 중심의 동아시아의 유통시스템을 큰 그림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5. 베트남 서술도 고민이 필요하다. 6. 경제, 문화적 교류에 대한 자료와 서술이 필요하다.
국민 국가의 모색	◦개항과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 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 문물의 수용과 변화	1. 중단원의 별 분량과 한 소단원의 분량을 고민해야 한다. 2. 각 대단원의 전체 배분문제(분량배분, 중단원 코너의 유형화와 계열화 방법과 분량), 코너의 성격과 내용, 인물의 수와 국가/성/직업의 안배 문제, 이것들의 교과서 내에서 위치 문제 등을 고민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 문제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각국의 경제 성장 ◦ 정치 발전 ◦갈등과 화해	1. 기존의 교과서, 집필 안내서, 모형 단원을 기준으로 얼개를 구성한다. 2.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이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3.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전개와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은 나라 별로 다루어야 하는가? 4. 용어에서 이념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5. 전후사는 사실 중심으로만 기술해야 하는가? 6. 지역 패권의 장악 과정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7. 대만에 대한 언급은 부분적으로 중국에 넣어서 하여야 하는가.

토론문[1]

문영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동아시아사’는 처음 시도되는 과목이므로 집필에 어려움이 있다. 처음 제작하는 교과서이므로 그 제작과정에 의미를 두고 집필할 필요가 있다.
- 교과서 검정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해설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총 6개의 영역과 17개의 심사항목으로 된 검정기준이 3월에 제출된 상태이다.
- 유의점 :

① ‘동아시아사’ 각 지역의 역사전개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가 평가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② 내용 서술의 수준 등은 집필기준상의 서술방법을 유의할 필요 있다. 고시된 검정기준을 잘 반영했다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③ 인명과 지명의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의 기준이나 편수용어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잘못된 용어를 반복 시 계속해서 감점되는 경우가 있음).

④ 총망라식 서술 시 검정위원이 읽다가 지쳐버릴 수 있다. 교과서에 내용을 다 담아내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성취기준에 따른 수위조절이 필요하겠다.

⑤ (샘플 원고를 보니)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든다.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쉽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과를 만들어야 한다.

⑥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사’라고 하면 독도문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갈등과 화해 측면에서 중요한 키워드라는 관점에서 독도 문제를 서술한 부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1) 학술회의 당일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토론문[2]

길윤형(한겨레신문사)

- 오늘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어보니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집필자분들의 고민도 느껴진다.
- 유의점 :
① 용어의 문제. 한국사 외에 중국·일본교과서의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서 조선통신사나 임진왜란 부분의 용어에 차이가 있다. 각국에서 쓰이는 용어의 차이를 심화학습 등에서 한번 확인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
② 시선의 문제. 이 '동아시아사'라는 교과서의 집필이 여러 나라들의 이해와 공존을 위한 작업인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독도문제 등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함인지 불분명하다.
③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어 있다. 실제 한일문제나 연구 성과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위인에 대한 소개도 빠질 수 없다.
④ 교과서에 사진이나 도표, 그래픽을 좀 더 늘려서 학생들의 보다 쉬운 이해를 도와야 한다.

2) 학술회의 당일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토론문[3]

정연[영락고등학교]

- 현장교사들의 동아시아사 교과목에 대한 인식 현황 : 처음에는 생소한 교과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선택과목으로 거론되기 시작되고 동아시아사 모형 단원을 통해 점차 수용하게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하는 동아시아사 교원연수에서도 처음에는 새로운 교과목에 대해 걱정하다가, 연수 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일반적으로 '세계사'라고 하면 흥미로워하는 반면, 중국사는 어렵게 느낀다. 이는 교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교원연수에서 중국사 연수를 통해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 문제는 동아시아사를 현장교사들이 얼마나 선택해 주느냐 인데, 여기서 교원연수가 역할을 발휘한다. 교원연수에서는 교육방법론 보다 내용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교과서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학습지도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사용 지도서를 미리 살펴본다면 교과목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 교과목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홍보방법은 모형단원에 준하는,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수업지도안을 곁들여서 교과목 안내서를 배부하는 방법이 있겠다.
- 또한, 내용연수와 더불어 전자책 형태로 제작을 하면 수업시간에 사진 등의 활용이 유용해진다. 동아시아사는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활동을 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사료집을 포함해서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해지는데, 전자책 등 자료집이 도움이 될 것이다.

3) 학술회의 당일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종합토론[4]

1. 김현구 (고려대학교)

- '2개월'이라는 최단기간의 개발과정이라고 듣고 '참 한국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동아시아사의 범위를 집필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처음부터 명시했어야 하지 않았나.
- 오늘 발표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위주로 언급되었다. 내용적인 문제에는 보통 자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교를 어느 시각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느냐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 여기서는 불교의 발전과정이 첨가되어야 하겠다.
- '교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교류는 공통점, 공동의 의식 다음에 나와야 한다고 본다. 우선 동아시아사의 공동의식을 논의해야 한다.
- 동아시아 공동체가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공동적인 부분과 독자적인 부분 짚어볼 필요가 있다.

2. 정만영 (재단 정책기획실장)

- 한국적으로 단기간에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한번 결정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

4) 참석자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함.

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사’에서 다루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을 경우 그 대응이 걱정된다(교학사라는 출판사를 넘어 검정이 통과되고 나면, 정부차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됨).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우선은 시범학교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 베트남 기술에 대한 고민 : ‘동아시아’에 한중일 외에 베트남만이 포함되었는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일 것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등은 일찍이 찬란한 문명을 이룬 나라인데 제외되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다.
- 불교의 전래과정에 대한 기술 부분 : 간략하게 ‘베트남을 거쳐서 왔다’고만 기술되어있는데, 다른 모든 과정을 모두 생략해 버리면 불교에 정통한 나라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중화사관에 치중된 분류 : 동북공정의 시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한족중심의 중국사로 정리해도 괜찮을지 걱정된다. 동아시아에는 여러 나라가 있다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편성해야 하는데, 일본사나 중국사 전공자 외에도 세계사 전공자도 필요하다.
- 용어의 문제 : 주변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통 용어를 쓰고 괄호 안에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병기하는 방법이 있다. 한중일 삼국 사이에서 리더격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3. 김지훈 (성균관대학교)

- 집필 수준과 기준에 아직 모호한 면이 있다. 원고지 200매 집필 시에 각주를 논문 쓰듯이 달아야 하는지 애매하다.
- 오늘 발표를 듣고 동아시아사가 한국사의 확대인가(한국 위주의 동아시아사)라는 인상을 받았다.
- 고선지 언급 부분 : 한국사의 확대인가,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에 대한 시각인가. 고선지의 활동 시기는 고구려가 망하고 당나라에 장군으로 활약한 시기이다. 고구려의 후예가 당나라에서 활약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당나라의 개방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국경을 넘나들며 활약한 인물의 서술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과 중국이 각자의 시각을 주장한다면 동아시아사의 의미는 약화되지 않을까.
- 용어 정의 문제 : 임진왜란에 대해 한일 간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있는데, 신중하게 서술해야 한다.

4. 신주백 (연세대학교)

- 교육현장에서 '동아시아사' 교과목이 확산되기 위한 재단 측의 마인드에 대해 : 교사용 안내서에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그에 앞서 안내서 수준을 넘어서는 총서가 있어야 한다.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과목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서 재단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교과목 채택 시 한국사 교과목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채택률이 낮아서 현재 많은 출판사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의 시각에서 충돌 시 동아시아사에 대해 유연한 검정 기준이 필요하다.

5. 남상구 (독도연구소)

- 두 출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제목은 "동아시아사"이다. 지역을 한중일로 한정하게 되면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차라리 "한중일 공동의 역사"라는 제목이 적절하지 않을까.
- 동아시아사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인가. 기존 교과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6. 정연 (영락고등학교)

- 교과서 집필 시 각종 기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까지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집필기준이 교과서를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각 단계 마다 참여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왜곡되는데, 검정위원들을 동아시아사 과목을 잘 알고 있는 분들로 구성해야 한다.
- 동아시아사란, 한국사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사 중심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쓰는 동아시아사라고 정의한다.
- 교류사와 관계사를 중시하지만 이것만의 동아시아사는 아니다. 동아시아 자체를 지역으로 인식하면 중심과 주변 인식을 해소할 수 있다. 가령, 조공·책봉문제를 피하지 말고, 중국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점에서 직시해야 한다.
- 모형단원을 보면 여러분들의 걱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현장 교사들도 처음에는 우려하다가 모형단원을 보며 안심했다.
- 동아시아사 교과서 나오면 외교적 문제 보다는 한국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 교과목 집필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재단과 교과부가 협조해주길 바란다.

7. 안병우 (한신대학교)

- 역사란 역사 나름의 범주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오늘날의 “동아시아사”인지를 구분할 필요 있다. 물론 외교적 항의는 있을 수 있지만, 동아시아사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한국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이다. 한국, 한국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교류가 거의 없는 나라들까지 서술해야 하는가. 만약 중국에서 동아시아사를 제작한다면 범주가 달라질 것이다.
- 결국은 서로의 연관성과 관련성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은 유교나 한자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교류 면에서 관련이 있으므로 동아시아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베트남만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참전 부분에서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과 주변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중국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심 주변 관점은 배제할 필요 있다.
- 동아시아사가 삼국역사 통합한 형태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역사이다. 국가를 넘어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문화와 역사가 바로 동아시아사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삼국 역사를 통합한 형태

는 동아시아사가 아니다.
- 한국과 동아시아와의 교류사라는 관점 보다는, 한국이 포함된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로 인식.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적 범주로 동아시아사 위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동아시아사 집필.
- 채택 후 한국사와의 관련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교육부에서는 처음으로 과목을 만들면서 용어 등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이다.
- 서술의 틀을 중국사와 한국사의 틀로 가두려고 하면 교과목 본래의 취지와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검정과정의 유연성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 최영호 (영산대학교)

- 동아시아사는 한국과 동아시아사의 관계사 혹은 교류사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은 한국 중심의 역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동아시아사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사라는 시각에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관계사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늘 범주가 변화한다는 관점을 갖지 않으면 부분적인 관계사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동아시아 교류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각국의 사회변화나 정치발전에 대한 서술 보다는 무역의 발전처럼 보편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동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9. 김보한 (단국대학교)

- 쉽게 쓰면 내용이 부실해지고, 그러다보면 시험문제 제출 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다양한 내용 다뤄달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쉽게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베트남사가 들어간 이유는 한국과의 관계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틀이라고 하는 지역적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 동아시아사의 완벽한 구성은 어렵지만, 최단기간의 집필이라는 점이 걱정된다.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한다.

10.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 한중일 간의 역사 갈등을 고민하고 화해를 도모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베트남사는 한족, 유교 문화권이며, 독자적 문화를 지켜온 민족이라는 점을 소개하기 위해 기술했다.

11. 조철수 (재단 협력팀장)

- 인도네이사나 필리핀 등의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언젠가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동아시아의 범위에 대해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 다루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검정하는 단계이므로 범위가 확산되기 보다는 안으로 좁히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12.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검정 과정의 유연성 요구에 대해 :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진술방식이 어긋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검정기준은 구절 등에 유의해 달라는 의미에서의 부탁이다.

13. 정리 : 조철수 (협력팀장)

- 하나의 교과목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된다. 되도록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했으나, 아직도 먼 길인 것 같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